

협회 소식

이사회 개최



협회는 지난 3월 22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서울호텔 토파즈룸에서 이방주 회장을 비롯한 신훈 부회장, 윤오수 상근부회장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제 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 이방주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오는 3월 30일, 정기 총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신훈 금호산업 부회장을 추천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공식으로 있는 회원부회장에는 광정환 대동주택 회장, 동문건설 경제용 회장, 이종수 현대건설 사장을 새로 선임했다. 신임 회원부회장의 임기는 현 회장의 임기와 함께 마치게 된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일반 회계 34억 6195만 원, 특별 회계 20억 4971만 원 규모의 결산안과 올해 사업 계획 및 일반 회계 33억 6370만 원, 특별 회계 13억 6278만 원 규모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이사회를 마치고 이규방 협회 고문의 최근 주택법 개정과 관련한 강의를 있었다. 차기 회장 후보로 의결된 신훈 금호산업 부회장은 "최근 주택 시장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책임이 막중하다. 평생 주택 사업을 해오신 여러 이사님들과 함께 협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임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3년의 임기를 마친 이방주 회장이 차기 신임 회장의 리더십과 협회 발전을 당부하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운영 홍보위원회 개최



협회는 지난 3월 13일, 서울 논현동 협회 회의실에서 봉희룡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 홍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 홍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최근 2월 임시국회 건설교통위에서 처리된 민간 택지의 분양가 내역 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토지 수용·사용 요건을 완화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전체 사업지의 20%만 확보하면 공공·민간 공동 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그동안 위헌 법률에 의해 학교 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게 하는 학교 용지 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보고했다.

또한 협회는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해 지방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을 60%로 완화하고 대출 금리를 합리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금감원 등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들은 주택 건설 대지 매도 청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민간 택지 택지비 평가 방법에 대한 업계의 우려에 적극 대처해줄 것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기본형 건축비 조정과 관련해 가산 비용 항목 등 건축비 현실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농지 전용에 대한 허가·협의 시점 완화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협회는 올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방주 회장 후임을 선출하고 2006년도 결산과 2007년도 예산을 승인하는 제15회 정기 총회를 3월 30일(금)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개최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대한주택보증 관련 실무 위원회장으로는 삼성물산 김명곤 상무를, 열린 공기업 위원회장으로는 풍림산업 한문혁 이사로 각각 교체했고, 운영 홍보위원회 부위원장에 두산산업개발 진형우 상무와 벽산건설 윤기열 전무를 추가 선임했으며, 감사에는 신성건설 정인철 부사장을 새로 선임했다.

회원사 소식



성원건설, 신임 사장에 조해식 씨

성원건설이 지난 22일, 신임 사장에 조해식(50·사진) 중동 지역 본부장을 임명했다. 조 신임 사장은 진주고와 울산공대를 졸업하고 성원건설 두바이 지사장 등을 역임했다. △중동 지역 본부장 겸 두바이 지사 사장 박창표

태영 공동 대표 이재규 씨

태영이 이재규(61·사진) 사장을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 사장은 영업과 기술 부문을, 현 박종영 대표 이사는 관리 부문을 맡는다. 또 태영은 김외곤(61) 건축본부 부사장을 기술 총괄 사장으로 임명했다.



△부사장 이재덕 ◆승진 △전무 이백래, 유영철 △상무 신선철, 강승찬, 장윤규 △상무보 송영철 △이사 대우 이태국, 이역재, 강충구, 이승모

포스코건설, 부사장 김익희·정동화 씨



◆승진 △부사장 김익희 △전무 민은호, 김병호, 김호섭, 정영만, 이문표 △상무 조남훈, 금영수, 신영길, 최규석, 최홍길, 고명수, 김용재, 이동만

◆신임 △부사장 정동화 △전무 김대호 △상무 정태현 △상무 대우 염만섭, 김현배, 박문주, 소기석, 시대복, 이광재, 안희태, 안해성, 김동호, 임경호, 김점권, 박명길, 정재훈, 조규진

**두산산업개발, '두산건설'로 사명 변경,
두산건설 CI 일부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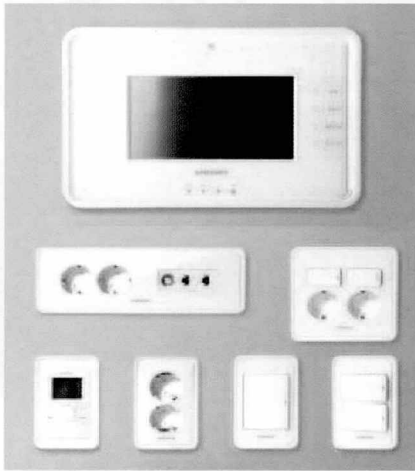
두산산업개발(대표이사 정지택)이 두산건설로 사명을 바꾼다. 두산산업개발은 주주 총회에서 회사명을 '두산건설'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국문명은 '두산건설', 영문명은 'DOOSAN Construction & Engineering Co. Ltd.'다.

두산산업개발은 2003년 9월 당시 두산건설이 법정 관리 중인 고려산업개발을 M&A(인수 합병) 한 후 2004년 3월 두 회사를 합병하면서 변경한 이름이다.

두산건설은 1960년 고(故) 박두병 추대 회장이 세운 동산토건을 모태로 창립돼 1993년 두산건설로 상호를 변경한 뒤 토목·아파트 사업 등에 주력해왔다.

또한 두산건설은 사명 변경에 따라 기업 이미지(CI)를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다. 새 CI는 '두산건설'이라는 사명을 현대적이고 친근함이 가미된 '산돌 고딕체'로 표기했다. 서체의 각진 모서리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진취적인 기상과 끊임없는 혁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 독일 '레드닷 디자인상' 수상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세계적인 권위의 디자인상인 독일의 '레드닷 어워드(Reddot Design Award)'에서 '래미안 전기 제품군 통합 디자인'으로 디자인상을 받았다. 레드닷 디자인상은 미국의 IDEA, 독일의 IF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히는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상이다. 이번 어워드에는 43개국의 2500여 개 제품이 출품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래미안 전기 제품군 통합 디자인'은 영국 텐저린사와 공동 개발

한 것으로, 작년에는 산자부의 굿 디자인상과 일본의 G 마크를 획득했다.

'래미안 전기 제품군 통합 디자인'은 아파트 실내의 전기아이템들(홀 오토메이션·온도 조절기·스위치·콘센트 등)을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으로 통합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사각형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고, 전체적으로 밝은 색상을 사용해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삼성건설은 지난 2005년부터 업계 처음으로 디자인실을 만드는 등 디자인 경영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건설 디자인실 김승민 실장은 "이번 독일 레드닷 수상으로 국내 주택 업계의 디자인이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단지 내 기상 관측 장비 설치



홈 네트워크를 이용해 아파트 단지에서 날씨 정보와 체감 온도, 불쾌 지수까지 알려주는 '똑똑한 아파트'가 등장한다.

롯데건설(대표이사 이창배)은 아파트 단지에 기상 관측 장비를 설치, 홈 네트워크를 통해 입주자에게 날씨

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상반기 내에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은 집 안에 설치된 모니터로 아파트 단지의 온도·습도·풍속·강수량 등 날씨 정보와 황사 농도·오존 등의 환경 정보까지 원하는 시간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체감 온도·불쾌 지수·자외선 지수와 일기 예보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옥외 전광판에도 정보를 제공해 입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편의도 도모할 계획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된 최첨단 기상 관측 시스템이 도입되면 롯데캐슬 입주민의 생활 편의가 한 단계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TV 배선 이용한 '세대 무선 랜' 개발



현대건설(대표이사 이종수)이 힐스테이트 출시 후 고객 만족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TV 배선을 이용한 세대 무선 랜 시스템 개발에 성공, 향후 분양되는 '힐스테이트'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무선 랜

시스템은 주방이나 현관에 설치된 통합 단자에서 벽이나 천장의 AP(Access Point : 무선 접속 장치)까지 별도의 배선 공사가 필요하고, 거실 중심으로 1개만 설치돼 침실 등 다른 공간에서 접속할 경우 속도가 느리거나 접속이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에 현대건설이 개발한 무선 랜 시스템은 아파트 내 통합 단자함에 무선 접속 장치를 설치한 후, 각 방에 무선 안테나가 내장된 TV 단자를 설치, 별도 배선 공사 없이 TV 배선을 활용해 어느 곳에서나 무선 랜 서비스가 가능토록 했고, 아파트 내부 벽이나 가구 등으로 인한 접속 속도 저하, 끊김 현상 등을 최소화해 입주자들이 안정적으로 무선 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별도의 배선 공사가 필요치 않아 구축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기존 아파트에도 간단하게 설치 가능해 입주자들이 편리하게 무선 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초기 구축 비용 외에 별도의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아 입주자들에게 경제적으로도 혜택을 줄 수 있게 된다.